



[정치]尹 대통령 숨겨진 외교행보 네덜란드 정상회담 06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77.45 (-2.88)	코스닥	743.10 (-1.86)
금리 (미국 3년)	3.765 (+0.012)	환율 (원/달러)	1325.00 (+7.40) (16일)

소비 큰손 '시니어 엄지족' 잡아라

고령화에 변화하는 유통업 ② 5060 부머쇼퍼

지난해 온라인 이용 증가율 60대 142%, 50대 110% ↑ 모바일 플랫폼 소비 증가세

이탈 잘 안하는 락인효과 커 공감·향수 자극 플렉스 유도 상품 퀄리티·배송에도 만전

유통업체가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많은 소비와 지출을 하는 5060세대의 이른 바 '부머쇼퍼'를 주목하고 있다. 부머쇼퍼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와 '쇼퍼'의 합성어다. 오랜 시간 경제활동을 해 온 만큼 구매력을 갖춘 데다 인터넷·모바일 환경에도 익숙해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들 세대의 온라인 거래도 크게 늘어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업종 이용 증가율은 60대가 2019년 대비 142%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했다. 50대가 110%, 40대가 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5060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신선식품물 컬리에 따르면 2020년 5060세대 가입자수는 전년 대비 21% 늘었고, 지난해에는 26% 증가했

다. 올해도 전년 대비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컬리 관계자는 "식재료를 구입할 때 마트나 시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던 세대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모바일 신선식품몰로 유입이 많이 됐다"며 "온라인 구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상품 퀄리티와 배송 서비스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60 소비층은 한 번 발을 들이면 쉽게 이탈하지 않는 고객 특인(Lock-in)효과가 크고, 이미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알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들 세대의 온라인 소비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번가는 60대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예능형 라이브방송 코너 '할릭스'를 론칭했다. 시니어 고객에게 공감대와 향수를 자극해 '자발적 플렉스'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방송에서 다루는 주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프리미엄 여행상품 등이며, 쇼호스트는 60대 배우를 섭외했다.

백화점과 마트 등도 부머쇼퍼의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현대백화점은 고령층을 위해 모바일 앱 '더현대닷컴'을 전면 개편, 가독성을 높였다. 할인행사 안내나 상품설명 글자 크기를 기존보다 최대 30%가량 키웠으며, 상품



달 탐사의 꿈 '아르테미스 1호' 발사 미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로켓 '아르테미스 1호'가 16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 39B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발사에는 사람 대신 마네킹을 실었으며 마네킹은 실제 우주인을 모사해 뼈, 장기, 조직 등 인체 조직과 같은 물질로 제작됐다. /AP 뉴스시

이미지 수도 3배 이상 늘렸다. 아울러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입력할 때 터치 위치 및 패턴 등을 분석해 자주 발생하는 오타를 자동

으로 보정해 주는 '딥러닝 오타 보정 서비스'도 적용했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 뉴테크놀로지포럼' 가상인간과 메타버스 초거대 AI의 미래 전략

최근 인공지능(AI) 분야 최대 이슈는 초거대 AI 개발과 가상인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초거대 AI 모델과 AI 언어모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검색, 비서, 쇼핑 등에도 초거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몰입감 높은 가상융합 공간과 디지털 휴먼 등을 구현하는 기술인 XR(가상융합) 형태의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 및 관련 산업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확장현실(XR),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등 범용 기술의 복합체입니다. 이처럼 AI와 메타버스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AI, 메타버스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초거대 AI, 가상인간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AI의 개발 흐름과 기능, 가상인간의 최신 트렌드,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메타버스 및 AI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전략을 세우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 주 제 : 초거대 AI, 가상인간과 메타버스
 - 일 시 : 2022년 11월 23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강 연 : 김정대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 김명준 SKT A.(에이닷)대화 담당, 이근복 마이크로소프트 시니어팀 상무, 운영진 네이버 AI사업개발 리더, 유지형 제네시스랩 기업부설연구소 AI연구팀장, 최하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한국메타버스 학회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 2022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해 넘긴다... 美도 심사 연기

美, 독과점 여부 추가 검토 대한항공 "시간 갖고 진행"

국내 항공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M&A)가 경쟁 당국의 심사 지연으로 해를 넘길 전망이다. 양사의 합병에 최대 분수령이었던 영국과 미국에서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양사의 심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영국은 독과점 부작용을 해소할 방

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미 법무부는 75일간 기업결합 심사를 하겠다고 대한항공과 협의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말 미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달 중순께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 노선의 경우 양사의 운항 비중이

높고 관련 인터뷰도 지난주에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합병 후 독과점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에서 결합심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표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며 "미국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심사 관련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심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

다"며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국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결정을 보류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한국과 영국 런던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밖에 없어 합병할 경우 해당 노선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독과점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한 상황이다.

당시 영국 당국은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이 더 높은 가격과 낮은 서비스 품질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화물운송에서도 영국 사업자들이 한국에 화물을 운송하는 데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CMA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우리들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양사의 인수합병은 더 자세한 조사(more in-depth investigation)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MA는 대한항공 등에 오는 21일까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CMA는 자료를 검토

한 이후 11월 28일까지 추가 조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MA의 발표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인 만큼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CMA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심사 또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국 경쟁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할 예정"이며 "심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향후 심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합의... 與 조세·청원 野 예산·경제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부, 서민금융 지원 강화해야" /사진 뉴시스

▲ 최재형, 확성기 이용한 선거 운동으로 벌금 50만원
▲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행안위 예산안 미상정에 野 반발



▲ 北, 핵·미사일 능력 과시 후 북미 대화 재개할 듯
▲ 대통령실 "외교 '美 일변도' 지적 동의 못해" /사진 뉴시스